

영화·콘서트 보러갈까

●영화 '가려진 시간'(16일 개봉 | 감독 엄태화 | 주연 강동원·신은수 | 129분 | 12세 관람가)



스크린 '홍행파워' 강동원의 신작, 의문의 실종 사건 이후 며칠 만에 청년이 되어 나타난 '아이'와 그가 여전히 '아이'임을 유일하게 믿는 소녀의 이야기다. 두 아이들의 이야기를 믿으려 하지 않는 어른들의 의심 어린 시선과 함께 영화는 믿음과 관계에 관한 질문을 던진다. 현실과 판타지의 경계를 넘나드는 신선하고 독특한 기획이 돋보인다. 엄태화 감독은 2012년 미장센 단편영화제에서 '술'으로 심사위원 만장일치 대상을 수상한 기대주다.

●이적 '올려피지다'(11월26·27일 오후 6시 | 서울 잠실실내체육관 | 만 7세 | 130분)



이적이 소극장 투어 이후 9개월 만에 다시 펼치는 대형 콘서트. 작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12개 도시에서 66회 공연하며 2만 8020석 전석 매진이란 대기록을 수립했다. 소극장과 대극장을 오가며 전방위적 공연 역사를 쌓아온 이적은 SNS를 통해 "최고의 공연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힌 기대를 받고 있다. 이적의 깊은 '올림'을 들을 수 있는 공연은 광주, 대구, 부산에서도 펼쳐진다. 문의 1588-1407

책 읽는 주말

●밤에 읽는 소심한 철학책(민이언 저 | 쌤앤파커스)



'밤에 읽는 소심한 철학책'은 하루의 끝에 읽기에 적합한 철학책이다. 일상의 매 순간에 존재하지만, 우리가 지나치고 있는 흥미로운 '철학적 사유'를 '불안'이라는 키워드로 풀어 놓았다. 우리보다 먼저 밤을 지새운 철학자들의 '생각'을 들춰보며 새로운 '생각'으로의 길을 터준다. 니체가 말하는 '이미 도래한 미래'부터 라이프니츠의 인생 방정식,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데카르트와 의심한 생각의 실체, 들뢰즈의 노마드 철학 등 책 속에서 철학은 우리 마음속 의문들에 대한 길을 탐색한다. 저자 민이언은 동양철학이라는 붓집을 둘러싼 채 거의 모든 서양철학을 둘러보고 연구했다.

엄마 아빠 어디가

●최남단 방어축제 2016(~11.20) | 제주 모슬포항 일원



제주의 대표적 해양문화축제이자 11월 제주바다의 대명사인 방어를 테마로 한 특산물 축제다. 방어는 지역 특산물 자리돔을 먹이삼아 마라도 주변에서 겨울을 보낸다. 최남단 어업 전진기지 모슬포항은 자리돔과 방어의 주산지다. 싱싱한 방어회를 비롯한 다양한 방어요리를 맛 볼 수 있고, 각종 방어낚시, 현장 경매, 손으로 방어 잡기 등 직접 참여할 프로그램이 많다. 선상 방어낚시는 축제기간 동안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파주 장단콩 축제(11.18~11.20) | 파주임진각광장



DMZ 청정환경에서 자란 파주 장단콩의 우수성을 알리고 농특산물 소비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997년부터 매년 11월 콩 수확시기에 맞춰 열린다. 장단콩과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전시공간 '알콩마당'을 비롯해 먹거리 공간 '달콩마당', 폐주만들기, 도리깨 콩타작 등 체험 및 참여 프로그램이 있는 '놀콩마당',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어울마당' 등이 있다.

편집 | 고형일 기자 ico@donga.com

“요리는 반복과 숙달의 연속...맛은 세월이 만들죠”

미슐랭 1스타 중식당 '진진' 황진선 셰프

무릎 다쳐 운동 꿈 접고 무작정 요리 도전 허드렛일 하면서 2년 만에 겨우 워킹잡아 음식에 엄격한 사부님...난 아직 멀었죠

서울 망원동의 '진진(津津)은 장안에서 가장 '핫'한 중식당이다.

미식가들 사이에서 깊은 내공의 맛집으로 사랑받던 이곳은 '수요미식회' 등의 미식 프로그램을 통해 소개되면서 더욱 유명세를 탔다. 7일 발표한 '미슐랭 가이드 서울'에서는 전체 24개 스타 레스토랑 중 '유이(有二)한 중식당으로 1스타를 받았다. 미슐랭 스타를 받은 다른 중식당이 포시즌스호텔의 '유 유안'이니, 서울의 일반 중식당으로는 유일한 수상이다.

'진진'은 사보이호텔 '호화대만점', 코리아나호텔 '대상해'를 거친 중식계 고수 왕육성 셰프가 세운 곳이다. 이곳에는 왕 셰프와 '대상해' 시절부터 동고동락한 애제자 황진선(30) 셰프가 있다.

막 이립(而立)에 들어선 나이지만, 진진의 세 매장(본관, 신관, 진진가연)을 총괄할 정도로 역량을 인정받는 중식계의 '젊은 피'다.

'셰프 전성시대'라 말할 정도로 셰프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높아진 요즘이다. 하지만 성공과 명성의 달달한 스토리는 넘쳐나도, 묵묵히 주방에서 땀 흘리며 사는 현실적인 삶의 이야기는 잘 만나기 어렵다. 그래서 매장의 브레이크 타임(휴식시간)에 맞춰 황진선 셰프를 찾아갔다. 하루하루 뜨거운 불을 마주하고 살아가는 현실과 함께 그 과정에서 하나씩 이루어가는 현재진행형의 꿈에 대해 듣고 싶었기 때문이다.

●해외유학? 전문학과? 꿈만 갖고 입문해 외길 10년

처음 인터뷰를 요청했을 때 황진선 셰프는 "아이구, 저보다 사부님과 인터뷰를 해야 하는데..."라며 한사코 사양을 했다. 여러 번의 설득 끝에 겨우 마주했지만 여전히 쑥스러워했다. 지금은 중식계의 주목받는 '영셰프'지만 그의 이력은 화려한 해외경력이나 관련 전문학과와 거리가 멀다.

태권도 선수로 대학교 경호관련 학과를 나왔다. "무릎십자인데 부상으로 새로운 길을 고민하다 어릴 적 꿈에 도전해 보자고 무작정 요리업종에 이력서를 냈다." 아무런 경력도, 교육도 없이 꿈만 갖고 이력서를 돌리던 중 연락이 온 것이 왕육성 셰프가 대표로 있던 코리아나 호텔 '대상해'. 박스 나르고, 접시 깔고, 각종 물건 정리하는 월급 80만원의 인턴사원으로 주방 인생과 왕육성 셰프의 인연이 함께 시작됐다.

"중식도를 대상해에 입사해서야 처음 만졌을 정도니 지금 생각하면 참 무모했다. 실제로 관



련학과를 나왔거나 경력 있는 동기들에 비해 일을 너무 못해 잘릴 뻔도 했다. 허드렛일을 하면서 쪼끔씩 어깨 너머 눈동냥으로 일을 배웠지만, 그것으로 부족해 밤에 술집 주방에서 일하면서 칼질 등 조리 훈련을 했다. 그렇게 2년을 버티니 겨우 워킹잡(중식 프라이팬)을 잡을 기회가 왔고, 그 이후 지금까지 왔다."

●셰프는 육체노동...몸고생 각오 안하면 못 버틴다

'천부적인 미각' 또는 '조리의 귀재'라고 종종 셰프의 천재성을 칭찬하는 말이 있다. 요리를 창의적인 직업으로 높게 평가하는 요즘 경향과 미슐랭 가이드, 월드 레스토랑 베스트 50 등의 해외 유명평가제가 알려지면서 생겨난 수식어다. 요리에도 천부적인 자질이 있을까.

황진선 셰프는 "천부적인 감각도 결국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이 인정해야 통하는 것이다. 누가 먹더라도 인정하는 요리가 되려면 또 그만큼 세월, 경험이 필요하다. 요리는 반복과 숙달의 직업이다."

그런 점에서 그는 셰프를 육체노동이라고 말한다. "아침 9시 반쯤 출근해 각자 업무준비하고, 그날 쓸 재료 다듬고 아침 먹으면 바로 점심장사 시작된다. 오후 2시쯤 끝나면 다시 재료 준비해야하고 이른 저녁식사를 마치면 밤장사가 시작된다. 장사 끝나면 홀부터 주방 환풍기까지 청소를 늦어도 10시 전에 마무리해야 한다. 매일

런학과를 나왔거나 경력 있는 동기들에 비해 일을 너무 못해 잘릴 뻔도 했다. 허드렛일을 하면서 쪼끔씩 어깨 너머 눈동냥으로 일을 배웠지만, 그것으로 부족해 밤에 술집 주방에서 일하면서 칼질 등 조리 훈련을 했다. 그렇게 2년을 버티니 겨우 워킹잡(중식 프라이팬)을 잡을 기회가 왔고, 그 이후 지금까지 왔다."

뮤지컬 '인터뷰' 김수용, 다중이 연기의 끝판왕



양행모의 아이러브 스테이지

꽤나 연극적인 뮤지컬, 인터뷰. 올해 초에 '조용히' 초연무대를 올릴 때만 해도 큰 관심이 없었다. 제목부터 딱히 끌리지 않았다. 인터뷰는 기자들에게 밥을 먹는 행위나 그게 그거다. 나 하기도 바쁘고 번잡스런 인터뷰를 굳이 남이 하는 것까지 찾아가 봐야하나 싶었다.

물론 농담이다. 뮤지컬 인터뷰는 '조용히' 시작했지만 이후의 행보는 결코 조용하지도, 터디지도 않았다. 작은 무대용 작품임에도 힘이 됐다. 올해 상반기에 현대카드 언더스테이지에서 첫 막을 올렸는데, "팬찮다"는 입소문이 빨리 났다. 이진명, 김수용, 조상웅, 문진아 등 소극장 무대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배우들의 출연도 눈길을 끌었다.

인터뷰는 처음부터 해외진출을 노린 작품이 아닌가 싶다. 지난 9월에 일본 도쿄에서 공연했는데 반응이 좋았는지 내년 1월에 또 한다는 소식이다. 2월에는 미국 오프 브로드웨이로 나간다.

뮤지컬 인터뷰는 베스트셀러 추리소설인 '인형의 죽음을 쓴 유진 김이라는 작가와 작가 지망생 싱클레어간의 인터뷰를 다룬다. 보조작가를 구하는 유진 김을 위해 출판사에서 보낸 싱클레어가 면접(인터뷰)을 보려고 유진 김의 집필



치밀한 캐릭터 분석에 능한 배우 김수용이 뮤지컬 인터뷰에서 다중인격자 싱클레어를 맡아 황홀할 정도로 멋진 연기를 선보이고 있다.

실 현관 벨을 누르면서 극이 시작된다. 까칠한 작가와 순둥이 작가 지망생의 취업 면접 인터뷰가 조금은 지루하게 진행되는가 싶었는데, 극은 순식간에 반전을 일으키며 가슴때달을 뻐는다. 10년 전 벌어진 '오피리어 살인사건'이 소환되면서 싱클레어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

●'캐릭터 분석가' 김수용의 진기가 드러난 무대

초연에 이어 재연무대에서도 모습을 드러낸 김수용은 싱클레어를 맡았다. 싱클레어이자 맺이며, 지미다. 심지어 이름이 없는 인물(노네임)이기도 하다. 김수용이 맡은 싱클레어는 흔히 다중인격으로 불리는 해리성 정체감 장애를 지닌 인물이기 때문이다. 이 장애는 한 사람 안에 둘 또는 그 이상의 인격상태가 존재한다. 통상적으로 성장시기에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에서 발견되기 쉽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싱클레어라는 인물의 연기가 만만치 않겠다는 상상이 갈 것이다. 전진난만한 어린아이부터 입만 열었다 하면 욕지거리를 해대는 거칠고 무식한 남자, 싱클레어 속의 모든 인격체들을 냉철한 눈으로 감시하며



1 황진선 셰프가 대개살볶음을 위해서 점심에 옮겨 담고 있다. 2 곁에 서면 여전히 어렵고 몸가짐이 조심스러워지는 '사부님' 왕육성 셰프(오른쪽)와 함께. 3 황진선 셰프가 꼽은 '진진'의 3대 메뉴. 담백한 풍미의 대개살볶음, 이곳 손님이면 무조건 시킨다는 필수아이템. 멘보샤, 산뜻한 매운맛과 고기를 다져넣은 식감의 인삼견인 마파두부. 김재범 기자

긴장하고 욕먹고 정신없이 분주한 일상이다."

●아직도 어렵지만 늘 고마운 '사부님' 왕육성 셰프

'진진'의 오너 왕육성 셰프를 그는 지금도 "사부님"이라고 깍듯이 부른다. 2013년 말 왕 셰프가 '대상해'를 그만두고 나와 새로운 가게를 차릴 때 그는 주저함 없이 같이 나와 창업에 참여했다.

"대상해 시절 초기에는 너무 어려운 존재라서 제대로 보기도 어려울 분이였다. 가끔 주방에 들어와서 호흡을 쳐서'저 양반은 누구야'라고 의아해 했다. 일할 때는 너무 엄격하고 음식에 집중하는 스타일이라 지금도 어렵다. 무지 꼼꼼하고 조금만 음식 밸런스가 어긋나거나 재료가 빠지면 난리가 난다."

이제는 미슐랭 스타 셰프인 사부님의 전체 업무를 관리하는 든든한 조력자인 그에게 미래의 꿈을 물었다. "아직 난 멀었다. 진진이 좀 더 잘 자리 잡는 동안 여건과 기회가 되면 무엇이든 배우고 싶다. 그리고 나중에 사부님이 꿈꾸는 후배 요리사를 양성하는 시스템을 두고 싶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다중인격 싱클레어 역 1인 다역 반전 연기 압권 때문에 없는 부분까지 분석...역시 캐릭터 장인

판단하고 지휘하는 이름없는 인물까지 김수용은 그야말로 '바쁘다 바빠' 연기를 펼쳐 보인다.

때로는 웃음이 나고 때로는 소름이 돋는다. 인물 간의 대비가 극적이다. 콘트라스트가 강렬한 보도용 흑백사진을 보는 것 같다.

김수용은 원래 캐릭터 분석에 강한 배우 중 한 명이다. 배우들마다 캐릭터를 분석하는 스타일은 조금씩 다르다. 김수용은 이미지 분석을 좋아한다. 스포츠 선수들의 이미지 트레이닝과 비슷하다. 캐릭터를 몇몇속에서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며 완성품이 나올 때까지 끈기있게 조각해 나가는 것이다. 물론 대본에 없는 부분까지 포함이다. 과장해서 말하면 자신이 맡은 캐릭터가 화장실에서 어떤 자세로 볼 일을 볼 것인가까지 고민하는 식이다.

그런 김수용도 이번엔 꽤 고전하지 않았을까. 캐릭터 하나 만드는 것도 집요하게 파고들어 답이 나와야 만족하는 사람인데 이번엔 1인 다역이다. 그것도 님은 점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금성인과 지구인만큼이나 다른 인물들이다. '캐릭터 분석가' 김수용이 빛나는 다중이 연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포만감이 드는 작품이다. 27일까지 서울 대학로 수현재씨어터에서 공연한다.

그나저나 마지막 장면이 참 감사하다. 이렇게 마무리할 아이디어를 어디서 어떻게 얻었을까. 대본을 쓰고 연출을 맡은 추정화의 솜씨다.

생활경제부 기자 rranbi@donga.com